

|  |
| --- |
| 독서노트 |
| 일병에서 병장까지,  그리고 현재. |
| 작성자: 이 지운 |

# 2016년

## 6/5 그동안 적은 것들 옮겨적은 날

* 생각을 전부 말해버리면 말의 의미와 무게가 여물지 않는다. – 법정 스님
*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돼!” 하고 외친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엇이든 새로운 현상이 출현할 가능성(블랙 스완)은 언제나 열려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가는 것이다.

< 왜 케이스 스터디 인가 >

* 어쩌다

내 이름을 불러준

그 목소리를

나는 문득 사랑하였다.

그 몸짓 하나에

들뜬 꿈 속 더딘 밤을 새우고

그 미소만으로

환상의 미래를 떠돌다

그 향기가 내 곁을 스치며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만

햇살처럼 부서지고 말았다.

-이남일, <첫사랑>

*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찾으면 다 있는 풀요. 엉키지 않고, 끊기지 않고 순조로이 돌아가는 맛. 용도에 맞는 것들이 착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안정감. 질릴 때쯤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해주는 설렘. 그런 여벌의 것들이 있다는 여유와 사치에 감사한다.

-밤삼킨별, <미래에서 기다릴께>

*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

*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찾아가는 것이다.

-마르셀 푸르스트( 프랑스의 작가 )

*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무릅쓰고 새 아이디어를 실행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실행하지 않을 구실만 찾는다.
* 누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밖에는 보지 못한다.

내가 놓치고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 겸손해지자.

*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폴 발레리( 프랑스의 시인 )
* 비관론자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의 정치가/군인 )
* 능력있는 자의 일을 대신 하지 말 것이며 아랫사람의 구체적인 일에 간섭하지 말라.
* 공자
*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여행하라.

-고염무 ( 중국의 학자 )

* 죄와 벌을 읽었다. 밀도 있고 몰입감 있는 내용이었다. 비록 악인이었지만 스비드리 가일로프라는 인물이 인상깊었다. 정욕과 탐욕, 도전 끝에 찾아온 권태. 보는 사람이 답답할 만큼 끊임없이 사고하고 분주히 움직여대던 주인공 라스꼴리니꼬프가 마지막엔 소냐의 무한한 사랑에 새 사람이 되는 해피엔딩. 주인공이 편해진 것 같아 나의 답답함도 엔딩을 보고 좀 해소가 됬다.
* 겸손함과 자부심의 조화.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내적동기에 따라 일하는 수많은 인비저블(invisible)들.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실제 가치보다 과장되어 있다.

-<Invisible>, 데이비드 즈와이그

*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 놀라운 창조는 단편적인 지식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지식은 지식에 불과하다. 지식을 쌓은 다음엔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지식과 지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떤 지적 폭발이 있어야 한다.

<아트 인문학 여행>

## 7/11

* 매일 체중계에 오르는 것으로 1년에 2.5kg 감량할 수 있다

<맨즈 헬스 5월호>

## 7/14

* 예술은 자유를 먹고 피어납니다. 고정관념과 이념의 교조에 생각과 감정이 묶이면 글이 진부해집니다.

-유시민 <표현의 기술>

## 7//20

*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는 레마크스의 말처럼, 생명은 항상 보편화 하거나 시스템화하거나 통계 숫자화하면 사라진다.

-이어령 <생명이 자본이다>

숫자는 덜 와닿는다. 이미지가 더 효과적이다.

## 7/21

* 긍정적 자기암시로 바꾸는 자정논대(ASDR) 논박법

자각( Aware ) – 정지( Stop ) – 논박( Distpute ) – 대체 ( Replace )

* 하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두 갈래로 쓰지 말아야 한다. 시간의 흐름을 다라 하나씩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좋다.
* 좋은 자기 암시는 집중에 도움이 된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집중을 유발하는 표현일수록 좋고 1인칭 현재형으로 해야 실제 순간에 도움이 된다.

뇌는 부정을 잘 모른다. “실수하지 말자” 보다 “완벽히 해낼 수 있다”가 낫다.

* 결과 목표( 1등하자, 누구누구보다 잘하자, etc )보다

과정목표( 재미있게 하자, ~기술을 숙달하자, 보완 점을 찾자 )의 비율을 높이자.

* 이미지 트레이닝의 3대 조건

멀티 감각 선명도 성공장면 -김병준<강심장이 되라>

## 7/22

* Beautiful ≒ pretty

단정하고 똑바른 아름다움 / 가벼운 예쁨, 잔꾀를 부린 예쁨.

비슷한 뜻이지만 어원에 큰 차이가 있다.

-조승연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

## 7/26

* 우리는 인간 감정의 고정성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기와 사랑하지 않기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선은 딱 두 번, 관계를 시작할 때와 끝낼 때에만 넘게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매 분마다 출퇴근하듯이 그 경계선을 넘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알랭 드 보통<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흔한 연애에서 이끌어 내는 철학적인 사색과 그에 곁들여지는 유머가 좋았다. ‘마르크스 주의’ 등 내가 알지못했던 단어나 철학 용어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더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 7/31

*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을 때

마인드를 복사하세요.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밝힌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에 밑줄을 치고 소리 내어 읽으세요. 그 다음 노트에 쓰고 암송한 다음 간절하고 절실하게 실천하세요.

* 변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기보다 아직도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책의 내용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라고 착각했다.

홍대리의 이런 실수는 나 또한 자주 범하곤 한다. “실천하자”라는 말은 “귀찮다”는 생각의 벽에 막혀 현실로 나와 보지도 못하고 고꾸라진다.

* 항구에 머문다면 분명 안전할 것이다.

거친 파도를 만나 시달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이지성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2>

## 8/1 <모모 momo> - 미하엘 엔데

* (중략)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 8/2 <아웃라이어>- 말콤 글래드웰

*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탁월성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연습량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사실 연구자들은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매직 넘버’에 수긍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1만시간이다.
*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꽉 움켜쥔 후, 그 특별한 노력이 사회 전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혼자서는 자기 길을 만들어가지 못한다.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산물이다.
* 문화적 유산의 힘은 강력하여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오래도록 지속된다. 문화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서도 지속되는 것은 물론 (중략) 나아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 개인은 그가 속한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를 무시하면 비행기가 추락한다.
* 가장 똑똑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성공했다는 신화는 그저 자신의 할 일에 충실했다는 뜻 정도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 8/5 <그리스인 조르바> - 니코스 카잔차키스

* (중략)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바란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만났다가는 헤어지면서도 우리의 눈은 하릴없이 사랑하던 사람의 얼굴 모습, 몸매와 몸짓을 기억하려고하니 … 부질없어라. 몇 년만 흘러도 그 눈이 검었던지 푸르렀던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가 조르바와 헤어지기 전날 밤 조르바를 잘 보아두며 하는 말. 씁쓸한 맛이다.

## 8/6 <종의 기원> - 정유정

* 내가 아흔 여덟 살쯤 먹어 죽음을 눈 앞에 뒀을 때, 신이 나를 데리러 와서 네 인생 어디 쯤에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세상이 스르르 사라지던 어젯밤 그 순간으로 가고 싶다고 대답하겠다.
* 이제 내가 왜 인간의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지에 대해 대답할 차례다. 평범한 비둘기라 믿는 우리의 본성 안에도 매의 ‘어두운 숲’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내면의 악, 타인의 악, 나아가 삶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 8/20 <생각의 망치> - F.W.니체

* 삶을 향한 우리의 강인한 의지에, 권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긴 싸움에, 삶이 허락하는 덧없는 선물에까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여린 심성에 인생은 합당한 축복을 내린다. 그 축복으로 우리는 마침내 삶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된다. 즉, 우리의 사명을 되찾는 것이다.
* 독창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것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예전부터 잘 알려진 것, 누군가의 눈에 띄기는 했지만 간과되었던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행위는 진실로 독창적인 두뇌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최초의 발견자는 항상 멍청한 공상가, 다시 말해 우연이라는 녀석이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의 산 허리에 건설하라. 그대들의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 가운데에 띄워라. 그대들의 벗, 그리고 그대 자신과의 영속적인 투쟁에 헌신하라. 그대들, 인식하는 자여,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약탈과 정복을 일삼는 자가 되어라.

겁을 집어먹은 사슴처럼 숲 속에 숨는 것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즐거운 학문

## 8/23 <태도에 관하여> - 임경선

* 젊을 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기초 체력 쌓기 훈련 같은 거라서 몸과 정신에 각인 시킬 수 있을 때 해놓지 않으면 훗날 진짜로 노력해야할 때 노력하지 못하거나 아예 노력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수 있다.
* 부탁의 무게와 신중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들어줄 생각이 들겠지만 상대방이 너무 쉽게 내게 부탁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라는 생각이 든다. (중략)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지 ‘이용당하고’ 싶진 않다.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당당하면 노력은 내가 하면서도 만만한 인간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진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의존에 필요한 것은 섬세함과 세심함이다.

공감이 많이 가는 대목이었다. 간단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간단히 부탁하곤 간단히 감사하고 잊어버린다. 하지만 부탁을 받는 입장에선 의외로 셈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순간의 부탁은 순간의 고마움 뿐이다. ‘만만한’ 사람이 아닌 ‘필요한’ 사람이 되자.

* 임경선이 꼽은 5가지 가치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 8/24 <사피엔스> - 유발 하라리

* 지난 40억년이 자연선택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지적설계가 지배하는 우주적인 새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생명 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컴퓨터 바이러스 등)

*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역사의 다음 단계에는 기술적, 유기적 영역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이다.
* 지난 몇십년 간 우리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는 마침내 약간의 실질적인 진보를 이룩했다. 대다수 인간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최근의 일이며 확신하기에는 상황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다.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불만족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인 듯 하다. 과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법칙 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 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 하며 무책임한 심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 8/26 <프로그래머 철학을 만나다> - 유 석문

* 권력과 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며 조직은 조직원으로 구성된다. 결국 권위라는 것은 조직원의 자발적인 지지와 헌신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권위는 독재와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 코드를 언제 다시 읽고 검토하면 좋을까? (중략) 적절한 시간에 꾸준히 수행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코드 커밋 전
2. 정적 분석 직후
3. 오류 수정 직후
4. 정리하는 시간

검토할 것

1. 의미있는 함수/변수 이름
2. 하드코딩 데이터 ( 의미파악이 어려운 숫자, 문자 )
3. 함수의 통일성
4. 통일된 데이터 형식
5. 복잡도
6. 오류 처리 방식 통일
7. 자원 해제 확인

* 가벼운 육체활동은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줄 것이고 그로 인해 개선된 인지능력과 논리력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세네카는 화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것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꼽았다.
* 임시방편의 오류는 자신의 믿음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명제를 덧붙이는 경우를 말한다.

## 8/26 <기록형 인간> - 이 찬영

*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몇 가지 실험을 통해 같은 횟수라면 ‘한 번 종합하여 반복하는 것’보다 ‘일정 시간의 범위에 분산 반복’하는 편이 훨씬 더 기억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1일, 3일, 10일, 30일, 90일, 후에 내용을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가계부 관련 앱의 등장으로 누구나 손쉽게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앱에는 문자메세지로 수신된 결제 정보를 가계부 앱에 자동 등록해 주는 똑똑한 기능도 있다.

전역 후에 활용해보자

* 역사상 알려진 유일하고도 확실한 학습 방법은 피드백이다.

-피터 드러커

* 오늘 날의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어내는 사람이다. 통섭형 인재라고 하자.

## 8/27 <죽음의 수용소에서> - 빅터 프랭클

*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시련이 가치있는 것이 되느냐는 것은 인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 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가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들려 주어야 했다.

## 8/28 <모멸감> - 김 찬호

*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마디 하겠는데’ 라면서 시작되는 충고라고 한다. 입에 쓴 약이 좋은 약이듯 쓴 말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어설픈 단정과 주제넘은 조언이 짜증을 불러올 때도 적지 않다. 상대방이 놓여있는 처지, 어쩔 수 없는 상황, 거기에서 겪는 일들과 그에 대한 느낌들에 대해 무심한 채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식 대로 도움말을 주는 것은 모멸감을 자아내기 쉽다.
* 인간은 자기를 알아주는 공동체를 만나 공적인 자아를 실현하면서 진부한 삶에 생기와 역동을 불어넣을 수 있다.
*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공자

* <중용>은 그러한 경지의 핵심을 풀이한다.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중(中)이라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되 절도에 맞도록 하는 것이 화(和)라고 한다. 중이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요, 화란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리다.”

어떤 감정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중’인데, 그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닌 모든 감정을 응축하고 있고 어떤 감정이라도 발현 시킬 수 있는 상태다.

* 존중과 자존의 문화는 여럿이 만드는 것이면서, 그 출발과 귀결의 지점은 각자의 내면에 있다. 감정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를 주의 깊게 보살펴야 한다. 마음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양생해야 한다.

## 8/29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관계의 기본 마음가짐은 첫째로, 사람 한 명을 난로 다루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잘못하면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또 너무 멀리하면 난로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뿐더러 아주 쌀쌀하고 춥게 됩니다.
* 왜 그와 대화하면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지켜야 할 예의 안에 갇혀서

솔직한 마음 속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경우든 대화는 재미있어저요.

*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일을 진짜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냥 하십시오.

## 8/30 <무의미의 축제> - 밀란 쿤데라

* 처음 읽어본 밀란 쿤데라의 장편 소설. 150p 정도 되는 책 속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나온다. ‘무의미의 축제’라는 제목에 맞게 그 이야기들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다. 소설이 마무리 될 즈음의 라몽의 말

“하찮고 의미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심지어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도, 참혹한 전투 속에서도, 최악의 불행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려면, 그리고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중략) 들이마셔봐요, 다르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의미를 들이마셔 봐요. 그것은 지혜의 열쇠이고, 좋은 기분의 열쇠이며 (중략) … “

우리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사소하고 금방 잊혀지는 무의미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낸다. 작가는 이러한 무의미한 생각과 망상들이 우리에게 때로 통찰과 좋은 기분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책 속 이야기들과 같은 우리 일상의 소소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지혜와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내가 이 책을 완벽히 이해하고 읽었다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

## 8/31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유현준

* 이렇듯 다양한 공간 체험, 이벤트, 날씨 등이 반영된 공간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다른 책처럼 저장된다. 이런 기억이 모이면서 10평짜리 마당은 100평이 넘는 기억의 서랍에 저장되기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공간에서 많은 이벤트가 일어날수록 덜 지루하고, 넓게 느껴진다

* 다양한 건축물들과 공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재미있는 책이었다. 작가가 우리 학교 도서관을 디자인했다고 한다. 건축도 알고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 분야인 것 같다.

## 9/1 <도마뱀> - 요시모토 바나나

* 그런 운명의 힘, 강이 가지고 있는 힘, 자연이나 건물이나 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발산하는 힘이 어쩌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 모든 것들이 뒤섞이고 서로 이어져서 내가 이곳에 있고, 혼자가 아니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 9/3 <행복의 기원> - 서 은국

* 인간의 이성적 사고 대 동물적 본능.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성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역으로 본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는 지는 과소평가하며 산다.
* 그렇다.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이유도 벌, 선인장, 꽃게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행복과 연결시키면 당연하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목표도, 이유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 객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큰 기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기쁨이 중요하다.
* 가장 빈곤한 인생은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베인 상처도 잘 아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 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 9/6 <제노사이드> - 다카노 가즈아키

* 한 가지만 말해보자면 실패없는 인생 따위는 있을 수가 없으며, 그 실패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실패한 만큼 강해진다.